

Australia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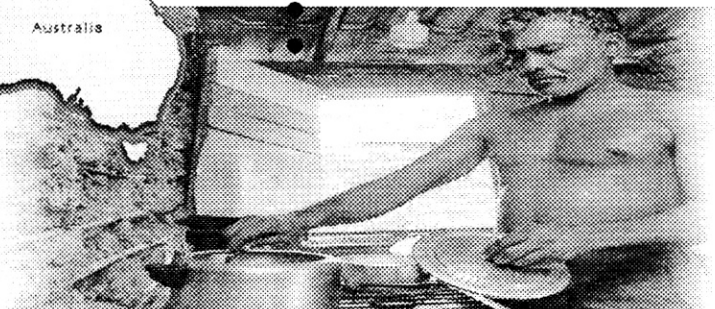
다문화주의 발전과 양질의 노동인력 수입

이 용 승 한국민족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호주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상호존중과
그들 간의 공존을 이루기 위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이민자 일반에 적용되는 매우 광범위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주 노동력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작업장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
또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서론

호주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이민을 통해 국민을 구성한 대표적인 이민국가다. 과거부터 호주 이민정책의 주요한 목적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인구의 증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호

주로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이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788년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전에 이곳에 살고 있던, 현재 전체 인구의 2.2%에 불과한 애보리진과 토리해협인들(Aborigine & Torres Strait Islander)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호주국민이 자신의 기원을 이민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¹⁾ 처음 영국의 죄수 수용소로 개발되어 백인들의 이주가 시작된 이래로 정착한 백인들을 현재 호주를 구성하는 주요 국민으로 간주한다면,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1800년대 중반 골드러쉬 시기 중국 노동자의 유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후 태평양 섬들에서 이주해온 도제 노동자들인 카나카스(Kanakas)도 초기 이주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부지런한 중국인 광부들에 대한 백인광부들의 불만은 빅토리아(Victoria)와 뉴 사우스 웨일스(New South Wales)에서 극에 달했고, 이러한 백인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양 식민지 정부가 중국인 노동력 유입에 대한 제한을 가한 것이 백호주의의 기원이 되었다. 백호주의는 오랫동안 유색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전후 호주는 대륙방위와 경제부흥을 위해 대량이민 정책을 실시해, 저임금 노동자로서 이용 가능한 비 영어 계 유럽인을 대거 이주시켰다.²⁾ 이후 이들만으로는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없었던 호주는 비유럽 계 이민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전후 빠르게 다문화적 상황에 진입했던 호주

1) Stephen Castle, "The Australia Model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Is It Applicable to Europ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6, No. 2 (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of New York, 1992), p. 549.

2) 關根政美, "多文化主義國家オーストラリアの誕生とその現在," 西川長夫, 渡邊公三, ガバン・マコーマック 編, 『多文化主義・多言語主義の現在: カナダ?オーストラリア・そして日本』(京都: 人文書院, 1997), p. 152. 호주는 독일 등과 달리 노동력 부족을 단기 이주 노동력에 의지하기 보다는 외국인을 이민으로 받아들이며, 일정한 기간을 정주하면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을 택했다. McGown, Valerie, "オーストラリアにおける移民, 労働市長と多文化主義," 法政大學比較經濟研究所, 森 廣正, 『國際労働力のグローバル化-外國人政策課題』比較經濟研究所研究シリーズ 15(통경: Hosei University press, 2000), p. 272.

는 이들을 호주 사회로 통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고는 다문화주의로 대표되는 호주의 통합정책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이주 노동력에 대한 호주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노동력의 현황을 요약하고, 3장에서는 합법적인 기술이민과 단기 기술 이주 노동력 활용에 대한 정책, 그리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호주에서의 이주 노동력과 관련한 앞으로의 전망을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이주 노동자 현황

2000년 현재 호주에는 230만 여명의 이주 노동자가 존재한다. 이는 호주 전체 노동력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음은 호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수와 외국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는 비율로만 보자면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이다. 영구 거주자(permanent residents)는 세계적인 불경기에 들어선 93년을 기점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점점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임시 노동자는 90년대를 통하여 계속하여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급기야 97년에는 이민 노동력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는 호주 정부가 노동력의 부족을 이민을 줄이는 대신 단기 노동력의 유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장·단기 이주 노동력은 호주 전체 노동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표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기준 이주 노동자 2,364,500명 중 영어 사용국(Mani English Speaking Countries, MESC)으로부터의 이주 노동자 수는 1,005,500명이며 나머지 1,359,000명이 비영어 사용국(Non-English

Speaking Countries, NESO) 출신자 들이다. MESC 출신자 중 94.7%, NESO 출신자 중 92.6%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호주 출생자 93.9%가 고용되어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호주 출생자가 남녀 각각 75.3%, 58.9%, MESC 출생자가 72.5%, 55.7%인데 반해 NESO 출생자들은 남녀 각각 63.5%, 44.1%를 보임으로서 많은 격차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³⁾

다음의 표와 그래프는 외국인 노동자의 출생 국별로 따로 정리한 것이다. 유럽으로부터의 이주 노동력은 동구권의 구 유고슬라비아와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장기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시아와 뉴질랜드로부터의 이주 노동력 유입은 계속해서 증가일로에 있다. 영국으로부터의 꾸준한 노동력 유입은 과거 식민지의 역사를 반영하는 언어적, 문화적 친밀성에 기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타의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이주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과거 노동력 송출국이었던 남부 유럽의 국가들이 경제적 성장을 달성함에 따라 더 이상 노동력을 송출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아래의 그래프는 이주 노동력 출생지의 비율 변화를 비교적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럽 쪽의 감소와 아시아 각국들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증가세는 매우 현저하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의 유입뿐만이 아니라 정주 이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시아의 노동력 유입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것은 1970년 대 초반의 백호주의 폐지의 직접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이미 정주하고 있는 아시아계 이민자와 본국의 잠재적 이주 노동자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노동력의 호주 유입도 그 정도가 급격하진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뉴질랜드 인

3) DIMIA, *Labour Market Composition*,
http://www.immi.gov.au/statistics/publications/popflows/c5_2.pdf

〈표-1〉 호주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누적계

(단위: 천)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영구정주자	48.4	40.3	22.1	12.8	20.2	20.0	19.7	26.0	27.9	32.4
임시노동자*	-	14.6	14.9	14.2	14.3	15.4	31.7	37.3	37.0	39.2
외국출생 노동자수	2,190	-	-	-	2,138.8	2,249.3	2,263.9	2,308.7	2,309.6	2,364.5
비율	25.7	-	-	-	23.9	24.8	25.0	24.9	24.6	24.5

출처: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Data

<http://www.oecd.org/dataoecd/24/2/2956530.xls> 검색일: 2003. 11. 21.

<http://www.oecd.org/dataoecd/24/4/2956522.xls> 검색일: 2003. 11. 21.

*임시노동자는 WHM(Working Holiday Makers) 프로그램에 따라 1년을 기한으로 18세부터 25세 사이의 노동력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한연장은 불가능하다.

에게는 호주인과 동일한 노동의 권리와 체류자격을 보장하는 양국의 전통적인 관계와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 또한 뉴질랜드 시민권의 획득은 호주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호주이민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호주로 직접 이민을 신청하지 않고 뉴질랜드로 우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⁴⁾

외국인 노동자 정책

기술이민과 단기 임시 노동자 수입정책

현재 호주는 전통적인 생산 직종의 기능·기술직 노동력의 부족으로 경쟁력 향상, 소비자 물가 안정, 생산성 향상, 임금정책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용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요구되고 있는 기술이민과 임시 이주 기술자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사용자 단체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대와 기술양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요구하고

4) 실제 2000년 호주의 이민장관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뉴질랜드 정부로 하여금 이민통제를 강화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호주뉴스』 2000. 12. 9., <http://www.hojunews.com>.

〈표-2〉 출생지별 이주노동자

국가 \ 년도	1986	1991	1996	2000	2001(여성)
유럽	1343.4	1332.1	1224.1	1142.1	450.4
영국, 아일랜드	677.2	697.6	661.3	630.0	255.9
전유고슬라비아	106.8	109.3	110.8	92.9	36.9
이탈리아	154.1	138.6	95.8	86.2	25.0
독일	70.2	70.2	59.8	62.3	24.1
그리스	86.6	80.3	60.1	45.3	16.1
네덜란드	63.4	55.6	45.0	40.7	15.6
폴란드	29.0	26.6	31.2	32.7	14.2
물타	28.2	28.8	30.1	20.3	7.6
기타	127.8	125.1	130.1	131.6	55.1
아시아	227.9	378.0	479.5	582.1	262.6
베트남	49.7	60.8	83.6	90.8	38.7
중국*	16.3	59.5	56.3	80.0	35.0
인도	33.7	39.6	49.0	75.0	27.7
필리핀	16.3	44.3	56.4	64.8	41.1
말레이시아	24.6	43.1	51.1	47.1	23.9
기타	87.3	130.7	183.2	224.4	96.3
뉴질랜드	139.8	187.3	208.7	251.1	115.0
북부 아프리카, 중동	71.2	94.4	104.9	119.6	39.7
레바논	23.8	37.0	35.8	39.3	11.4
기타	47.5	57.4	69.1	80.3	28.3
미국	55.8	75.6	97.3	99.9	47.5
기타	77.9	101.6	134.7	172.5	78.9
계	1916.0	2169.0	2249.3	2367.3	994.1
전체 노동력에 대한 비율	25.5	25.7	24.8	24.2	23.1

출처: OECD: <http://www.oecd.org/dataoecd/4/44/2956587.x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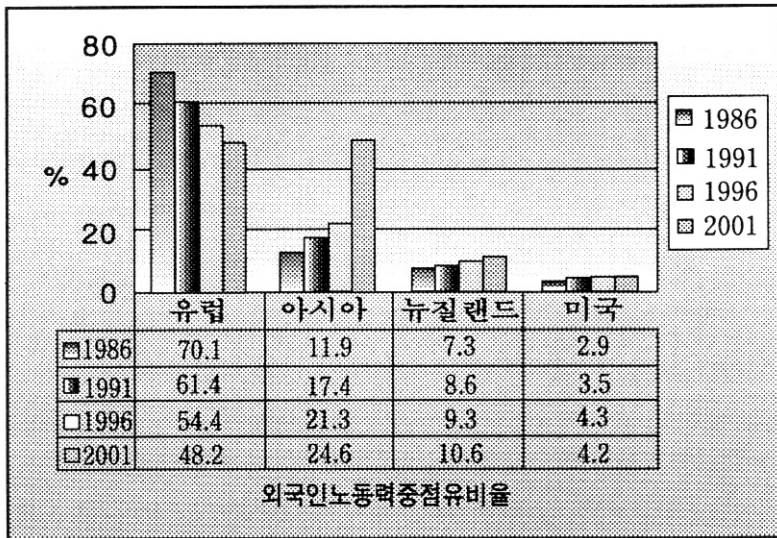
주*: 홍콩, 대만제외

있다.⁵⁾

먼저 기술이민을 보자면 회계연도 2003-4년 호주 이민국이 발표한

5) 신준식, "호주 생산 기술·기술직의 노동력 부족과 대책," 『국제노동브리프』 Vol.1, No 6(한국 노동연구원, 2003. 6.), pp. 3-6

〈그림-1〉 호주 유입 노동자 변화 추이



이민쿼터는 100,000-110,000 명중 기술이민은 63,300명으로 전체 이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⁶⁾ 1958년에 개정된 호주 이민법은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이민국은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발표하여 그 해 허용된 이민쿼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민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서는 호주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노동력의 특성을 반영하는 포인트 항목을 정하고 이를 이민심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항목은 기술(skills), 나이, 영어구사능력 등이다. 또한 호주 전체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계속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이주노동필요직업리스트(The 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 List, MODL)를 노동부 주관으로 1년 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⁷⁾

6) DIMIA, Fact Sheet: Migration Program Planning Levels,
<http://www.immi.gov.au/facts/20planning.htm>

〈표-3〉은 2002-3년의 기술이민의 실적과 2003-4년 기술이민 계획을 세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술이민 중에는 호주 내에 특별한 친척이나 후원기업이 없으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호주 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독립기술 이민자의 수가 가장 많다. 특히 RSMS나 STNI는 인구 증가율이 낮은 지방의 고용주나 지방정부가 해외 노동력을 직접 유치하는 제도로서 해당 지역의 기업체를 발전시키고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기술이민자 정착을 돕고 호주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민정책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⁷⁾ 먼저 호주 이민국은 이민자들의 호주 공동체로의 정착을 돕기 위해 소수민족이나 여타의 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2002년 한 해 동안 이를 위해 제공된 예산은 약 2,752만 달러에 이른다. 다음으로 번역과 통역서비스가 1800명의 전문적 통역에 의해 100여 가지의 언어로 제공된다. 세 번째로는 교육의 기회를 갖기 힘든 성인 이민자를 위한 영어교육이다. 호주가 다문화주의를 시행하면서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영어교육이다. 호주 이민국은 각 주의 영어교육기관과 계약을 맺어 새롭게 유입된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 2001-02 동안 33,000명 이상이 영어교육을 받았고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약 9,700만 불이다.

단기 임시 노동자 또한 호주가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단기 이주 노동에는 임시 비즈니스 비자, 노동협약(Labour Agreement),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WHM Program) 등이 있다. 임시 비즈니스 비자는 4년을 기한으로 미리 인가된 기업에 고용되

7) DIMIA, *Fact Sheet: Managing the Migration Program*, <http://www.immi.gov.au/facts/21managing.htm>

8) DIMIA, *Fact Sheet: Key Facts in Immigration*, <http://www.immi.gov.au/facts/index.htm> 이러한 이민정책은 기술이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정책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표-3〉 기술이민의 종류

기술이민	2002~3 결과	2003~4 계획
친지초청기술이민(Skilled-Austrian Sponsored)	10,470	11,800
독립기술이민(Skilled-Independent Migration)	38,120	33,400
ENS/LA/RSMS/STNI**	10,540	10,500
사업기술이민(Business Skills Migration)	6,740	7,400
특별 재능(Distinguished Talent)**	180	200
1 November**	20	0
기술이민 총계	66,050	63,300
전체 이민 중 비율	61.1%	60.3%

출처: DIMIA, Fact Sheet: Migration Program Planning Levels

주*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LA: Labour Agreement, 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STNI: State/Territory Nominated Independent Scheme

주**호주에 유익한 재능을 소지한 자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로써 스포츠 종사자, 음악가, 예술가, 디자이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 1993년 11월 1일 발표된 "1 November"란 원래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 시 호주에 있던 중국국적자에 한해 4년간 임시 정주를 허락하는 제도로써 지금은 기술력을 소유한 난민이나 호주에서 대학원과정을 마친 고기술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어 노동을 제공하는 고급기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협약은 정부와 고용주 혹은 산업 단체가 체결하는 공식적인 협정으로서 이 협약을 통해 호주의 기업주들은 노동시장에서 부족이 예상되거나 혹은 이미 부족한 분야의 노동력을 외국으로부터 고용할 수 있다. 협정은 통상 2년 내지 3년 동안 유효하다.⁹⁾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은 본래 휴가와 노동을 접목시켜 협약이 체결된 국가들과 호주 상호간의 문화적, 사회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위에 OECD조차도 임시 노동자로 분류한 것처럼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계절 노동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¹⁰⁾

현재 호주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나라는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아일랜드, 몰타, 한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홍콩,

9) DIMIA, Fact Sheet: Assisting Skilled and Business People,

<http://www.immi.gov.au/facts/48%20assisting.htm>

10) 한국의 경우는 영어학습을 위한 기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계절노동에 더 큰 비중이 실리고 있다.

핀란드, 사이프러스, 이텔리 등의 15개국이다. 비자의 기한은 12개월이며, 직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호주에 있는 동안 한 직장에 3개월 이상 머물 수 없다. 다음은 각 회계연도의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수와 2003년도의 각 국별 참가자수이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정책

당국의 허가없이 입국하여 취업한 자, 혹은 그들이 소지한 비자가 취업비자가 아니거나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국가에 체류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는 미등록 노동자의 수는 2003년 현재 약 30,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호주 이민국은 2003년 6월, 약 59,800명이 호주에 불법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덧붙여 비자에 명시된 체류자격을 위반하여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¹⁾

호주의 경우도 불법 이주 노동자가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들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여타의 국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불법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정부 이민국의 공식사이트인 DIMIA의 다음과 같은 분석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즉 불법이주 노동자는 첫째, 호주 시민들과 영구 정주자의 직업기회를 제한하고, 둘째, 그들을 수용하고 추방하는데 추가적 세금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우고, 또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안전보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적 세금부담이 든다. 셋째,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제공하는 불법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최저 임금제와 같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합법적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와는 애초부터 경쟁이 되지

11) DIMIA, Fact Sheet: Initiatives to Combat Illegal Work in Australia,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3., <http://www.immi.gov.au/facts/87illegal.htm>.

않기 때문에, 불법 이주 노동자의 존재는 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를 끼친다¹²⁾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통제와 규제와 맞추어져 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적발 즉시 비자가 박탈되고, 임시 구류 후 추방된다. 이에 더해 최고 10,000불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간접 고용주 포함)에도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알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한번 추방된 노동자는 법적으로는 3년 동안만 재입국이 불허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호주에는 매우 적은 수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존재한다. 이는 두 가지로 긍정적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제공할 수 있는 종류와 같은 노동력의 수요가 많지 않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장시간 저임금의 미등록 노동력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에 민감하지 않은 고용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호주 정부가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마련해 주기 위해 미등록 노동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시드니와 같은 국제적인 도시나 관광도시에서의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비숙련 노동력의 흡인요인이 다른 국가의 국제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첫째 가정은 타당성이 희박하다.

두 번째로는 호주 정부가 노동력의 부족에 대응하여 독일과 같은 단기 노동자보다는 이민에 의지했던 과거 이민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민의 문호가 넓게 개방되어 있어 정주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굳이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하며 불법 노동자가 되는 것은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 규제정책의 효율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으나, 호주 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더 강력한 통제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으며,¹³⁾ 근래 몇몇 경험적 연구에서 보

12) Ibid.

1998~9	1999~2000	2000~1	2001~2	2002~3	
65,000	74,450	76,570	85,200	88,758	
〈표-4〉 WHM 프로그램의 년도별 추이와 2002-03년 참가국 출처: DIMIA, <i>Working Holiday Maker Program</i>				영국	39,711
				아일랜드	11,128
				일본	9,711
				독일	7,558
				캐나다	6,230
				네덜란드	5,858

여지 듯¹⁴⁾ 정부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미등록 노동자를 줄이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호주의 미등록 노동자 수가 현저히 적은 이유는 이주 노동력에 대한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유입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전 망

호주가 문화적 동질성을 지향하는 백호주의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민의 문호를 개방한 것은 그간의 이민으로 인해 문화적 구성이 다양해진 것 또한 원인이지만 국내의 노동력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2차 대전 종전 직후인 1947년 호주정부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호주는 붕괴할 것이다’라는 (‘populate or perish’) 캐치프레이즈 하에 당시 이민 장관인 칼웰(Arthur A. Calwell)의 주도 하에 대규모의 이민 계획을 입안했던¹⁵⁾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현재와 같은 높은 비율의 이주 노동력을 결

13) 각국의 불법 노동자에 대한 통제정책 비교는 Robin, Sophie & Lucile Barros,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Measures Implemented in OECD Member Countries," OECD, Combating the Illegal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Paris, 2000), pp. 81-100 참조.

14) 이에 대해서는 Jan Hjarne, "Introduction," *Illegal Immigrants and Developments in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s of the EU* (Cornwall: Ashgate Publishing Ltd., 2003) 참조

과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인구 상승률의 장기저락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특정 산업부문은 항상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개연성이 매우 높다. 과거 이민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소했던 바와 같이 향후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이주 노동력은 매우 긴요한 풀(pool)로서 기능할 것이다. 다만 위의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보다는 환류를 전제하는 단기 임시 노동력을 선호하는 경향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민정책은 특정 시기의 사회·경제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정치지형에 의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1998년 총선거에서 극우적인 주장을 펼쳐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던 일국당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일국당은 그 영향력이 현격히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호주 정당정치에 중요한 행위자임을 부인할 순 없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정치영역에서 반 이민과 인종편견적 정서를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득표력 여하에 따라 기존의 주요 정당의 이민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호주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상호존중과 그들 간의 공존을 이루기 위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이민자 일반에 적용되는 매우 광범위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주 노동력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작업장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 또한 그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다문화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적인 정착은 경제적 필요에 따른 이주 노동력의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인정과 컨센서스 형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정치영역에서 왜곡된 논리에 기대어 이주 노동력의 유입을 적대시하는 세력의 부상을 여하히 제어하느냐 하는 것도 현재 호주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5)Jupp, James, "From 'White Australia' to 'Part of Asia': Recent Shifts in Australian Immigration Policy towards the Reg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9, No. 1(Spring, 1995), p. 209.